

한국과 미국의 실내디자인학 대학원 현황과 학위제도 특성

Interior Design Graduate Education System and Degrees in Korea and the U.S.

Author 심은주 Shim, Eun-Ju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Abstract Graduate education in general means nurturing scholars who are capable of research that adds to the 'body of knowledge' and educators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Therefore 'discovering' new knowledge has always been a major role of graduate schools. However, interior design is a special field that 'application' can also produce new knowledge and therefore a wider understanding of scholarship is needed especially in the graduate leve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Interior Design graduate edu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velop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s and address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meanings of graduate degrees in general and current situation of Interior degrees offered in Korea. Then investigates the different types of graduate degrees in the U.S. such as post-professional degrees, first-professional degrees, and differences in general degree(M.A., M.S.) and professional degrees (M.F.A., M.I.D.). The researcher has used websites of each school and information lists of degrees offered by KIID and IDEC that serves as the main educators council in each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graduate degrees in America can be described as a structured system based on variety, flexibility, and distinction. For instance, M.F.A means a professional degree that is focused on building theory based project abilities, longer period to study but counted as a terminal in the field. However, in Korea even though the title of the degrees may differ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shown in the educational contents. Therefore issues such as developing a more universal and international degree system, flexible and selective educational road-map,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ed system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for better graduate education system are proposed. Moreover, hope to start a discourse on defining scholarship and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Keywords 대학원 교육, 실내디자인학위 제도, 실내디자인 석사학위, 전문 학위제도
Interior Design Education, Graduate Education, Masters Degree, Professional Degre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이전과 달리 이미 대학교육은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대학원교육까지 일반화되어가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는 이전 유럽의 대학이 소수 엘리트교육에서 대중(mass)화로 전환되고 미국대학이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보편성(universal)의 교육으로 전환되던 당시¹⁾와 같이 고등교육의 목표와 가치가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의미와 방식에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산업화 시대로의 진입에 등장한 새로

운 기술이자 예술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선산후학(先産後學)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전공지식과 기초 교양을 겸비한 인력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야고유의 지식체계(Body of Knowledge)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대학원교육이 시작되었고 실내디자인 분야 역시 독립적인 학과신설 이후 대학원 교육과정도 함께 증가되어 현재 3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은 전공분야의 심화과정으로 인식되어 지식의 습득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보다 능동적인 교육과정이자 연구과정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의학, 법학, 경영학 등과 같이 학문의 본질이

1) Charles Thwing 저, 이우행 역, 대학과 학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9, pp.1-2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보다 전문화된 지식의 적용에 중점을 두는 고급 전문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원 또한 필요하게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원 교육의 의미와 역할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지식의 생산과 적용이 모두 중요한 전문분야로서의 실내디자인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특히 표준화, 전문화, 차별화 등과 같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대학원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 전문교육인증기관인 FIDER(현재 CIDA)의 창립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실내디자인학 교육 기준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학위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사한 대학원 체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면상의 유사성과 달리 차이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내디자인계의 대학원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대학원과 학위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첫째, 실내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대학원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 대학원의 대학원 학위제도와 미국의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국내 대학원 학위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논의되어야 하는 점들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물론 학위제도에 관한 고찰은 전문교육 인증 또는 자격증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내디자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략적 방향들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즉, 실내디자인의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학원 교육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학원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한 사전 연구이자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실내디자인학 대학원의 학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별 학위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전에 국내와 미국의 학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헌을 통해 대학원 교육의 특성과 양국의 교육시스템을 고찰하였고 2014년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양국의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석사학위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구체적 제도

보다는 현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대학원 명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 이수학점, 졸업 논문, 설계 수업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 역시 실내디자인학회(Interior Design Educators Council)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대학원 색인과 학술지인 JID(Journal of Interior Design)의 논문들을 근거로 정리했다. 또한 대학원 인증에 관련해서는 인증전문기관인 CIDA의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주립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였다.

2. 국내 대학원 학위와 제도 고찰

2.1. 학문활동 장으로서의 대학원 교육특성과 유형

대학의 목표가 교양과 전문성의 균형잡힌 교육에 있다면 대학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있는 연구(research)를 통한 학문활동(scholarship)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학자(scholar)들의 배출과 분야 고유의 지식체계(body of knowledge)가 발전된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행정가였던 보이어(Boyer, Ernest L, 1928-1995)²⁾는 이제 학문활동이란 전통적 개념의 연구로 이해되는 지식의 발견(scholarship of discovery) 뿐만 아니라 종합(scholarship of integration), 적용(scholarship of application), 그리고 전달(scholarship of teaching)의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하며 그 가치가 모두 존중되고 인정받는 풍토가 학계에 확대되어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³⁾ 이는 미국 대학의 교수 평가기준은 물론이고 분야별 교육방향과 정체성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학문 활동이 이해되고 인정받아야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의 적용'도 지식생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학문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적용의 활동이 지식의 발견 이후의 단계가 아니라 적용을 통해서도 새로운 지식의 생

2) 에른스트 보이어는 미국 교육국장(United States Commissioner of Education)을 역임했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고등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0년 'Scholarship Reconsidered'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문활동의 개념과 가치의 재정립을 주장했으며 보고서 'Building Community: A New Future for Architecture Education and Practice'를 통해 건축학과 같이 순수학문 영역과 다른 실무중심 교육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3) Boyer Ernest L. Scholarship Reconsidered, Jossey-Bass, 1997, pp.30-35

산이 이뤄지는 ‘쌍방향적 관계’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보이어의 이론은 의학, 법학, 건축학 등과 같이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과 훈련이 동반되는 전문분야에서는 특히 지식의 적용에 의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전문가(professional) 육성 또한 대학원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보이어의 학문활동 유형 분류

실내디자인의 분야도 학문 활동의 폭이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수진 평가방법, 심지어는 학위제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석사와 박사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연구중심 제도와 더불어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활동도 인정되는 전문교육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실내디자인만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 인력 양성체제 현황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양성인력)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연구·교수인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재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야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으로 학술학위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
학부의 교원·교사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 없이 별도의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실제 배출인력	학술지향 및 직업지향 인력	직업 지향인력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현재 국내 고급인력 양성 체제는 표24)와 같이 일반, 전문 그리고 특수 대학원의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의·치의학, 법률, 경영(M.B.A), 통역, 국제통상,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국가전략분야, 물류, 디자인 등을 전문분야로 규정하고 일반대학원과 다른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 설치를 권장5)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대학원 진학 인원의 증가 현상 등의 이유로 현재 국가적으로 전문 학위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별화된 대학원의 교육제도는 전문가 자격증 기준요건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학계를 넘어 업계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950년 미국 실내디자인협회(ASID)의 재출범 그리고 1990년 한국실내디자인협회(KOSID)가 탄생된 이래 양국의 협회들도 건축

등과 같은 인근분야와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해왔다. 제도적 차원에서 전문분야란 체계적인 교육, 훈련 그리고 자격증을 의미하는 3E(education, experience, examination)를 통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기초는 교육에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2. 지식의 생산을 위한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제도는 교수 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을 목적으로 1946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80년대 들어와 경영, 법학, 공학 교육 등 다양한 특수대학원과 1997년도 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대학원이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전체 4년제 대학 가운데 12.3%만이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사과정이 다른 학위과정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석사과정에서 바로 진학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서 연구 인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6)

2011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예체능계열의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 모두의 입학경쟁률이 2.1대1로 2008년 석사학위 8.1대1, 박사 3.6대1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우선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학원, 특히 직장과 병행이 가능한 특수대학원의 증가와 유학기회의 증가를 손꼽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을 통한 사회적 지위나 수익 향상의 폭이 예전에 비해 낮아진 실질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 통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예술계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학사학위소지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는 있으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소지자 사이에서는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박사학위 소지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대학원 진학률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7)

대학원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내는 일이고 연구와 교수 인력 배출을 위한 석사와 박사과정의 학위과정은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계열에서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 일반(7.8%)>전문(5.3%)>특수(2.4%)8)을 보면 사실을 확인할

4) 김형관, 전문대학원 운영현황 기초조사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p.13
 5) 교육인적자원부, 경영(금융, 물류)전문대학원 육성체제 계획, 2005. 11, <http://www.moe.go.kr/web> (2014.6) p.4
 6) 최효지, 대학원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2013, pp.25-29
 7) 최효지, op. cit., pp.50-51
 8) 교육과학기술부, 2014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010.6. <http://www.moe.go.kr/web> (2014.6) p.3

수 있다.

반세기가 조금 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내디자인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유의 지식체계 구축과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오늘까지도 일반대학원은 그 중심에 있다. 1988년 학부에서의 독립적 학과 탄생 이후 이제 국내 실내디자인학 관련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은 대략 32개이며 박사과정까지 가지고 있는 곳도 18개에 이르는 만큼 실내디자인학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⁹⁾

2.3. 지식의 적용을 위한 대학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체 대학원생 가운데 직장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64.5%로 학업에만 전념하는 원생인 비율인 35.5%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박사과정 신입생 평균연령이 40.4세로 이전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는 직업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의 증가와 더불어 직장 내에서의 인정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전처럼 석사 후 바로 박사과정 진입이 아니라 사회경험을 쌓은 후 또는 그 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순수한 연구 즉 지식의 생산을 위한 대학원보다도 양적으로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의 적용을 위한 실무교육중심의 대학원도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부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자체의 교수진과 시설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더불어 실습관련 수업들이 강조되기에 졸업을 위한 시수도 다른 대학원의 2,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등록금은 또한 1.5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전문 지식은 물론 실무환경과 비슷한 훈련교육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고급 전문가의 육성을 목표로 현재 경영학전문학위인 M.B.A, 의학전문학위인 M.D, 그리고 건축디자인의 M.Arch나 조경디자인의 M.L.A과정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 석사의 경우 일반 학사학위와 다르게 졸업학위의 괄호 안에 전문분야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차별시키고 있다.¹¹⁾

실무중심의 교육이라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그리고 일반 성인을 위한 재교육이나 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대학원이나 학부의 교수진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업이 야간에 진행되며 졸업을 위한 논문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대학원의 취업률은 가장 높

은 편이나 박사과정 진입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기에 학업의 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운영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¹²⁾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¹³⁾

3. 국내 실내디자인 석사학위제도와 현황

3.1. 국내 실내디자인학의 분류

다른 학문과 달리 현재 실내디자인학과 또는 전공은 예술대학, 디자인대학, 건축대학, 생활과학대학 심지어 자연과학대학에도 위치해 있다. 공간의 미학과 기능, 아이디어와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분야이기에 워낙 융합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독립적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특한 특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내외 분류체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학술진흥연구재단에서 분류해 놓은 현재 각 분야의 학술지들을 살펴보면 한국실내디자인은 예술체육계열로 되어 있으나 건축학은 공학이고 주거학은 자연과학계열이다.

인공물	건설/교통	시설물 설계	건축
인간	문화/예술/체육	환경디자인	실내/공간디자인
사회	생활	주거	주거/단지 계획 및 디자인

<그림 2> 국가기술과학표준분류체계

건설	건축	건축설계 감리	실내건축설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자인	디자인	실내디자인

<그림 3> NCS 분류체계

또한 국가기술과학표준분류체계에 의하면 실내 및 공간디자인은 대분류 '인간', 중분류 '문화예술체육' 소분류 '환경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다. 반면 건축은 다른 공학의 분야와 더불어 건설교통의 중분류 안에 들어가 있으며 주거계획 및 디자인은 사회계열로 분류되어 있다. 2014년 6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하면 실내디자인은 환경과 별도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으로 구분되어

9) 본 자료는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디자인학 관련학과 및 전공 명단을 기초로 함
 10) 김형관 외,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58호, 2005, pp.378-39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s.go.kr>
 12) 교육과학부, 2011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010.6. <http://www.moe.go.kr/web> (2014.6)
 13) 교육과학부, 2014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010.6. <http://www.moe.go.kr/web> (2014.6)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건설> 건축> 건축설계 감리> 실내 건축설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¹⁴⁾

국내에서 디자인은 예체능계열로, 건축학과 주거학은 자연계열로 구분되어 있는 현상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고 있다.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카렐 카이텐브라윌(Carel Kuitenbrouwer)¹⁵⁾의 말처럼 실

미국 실내디자인의 경우 대다수가 디자인대학에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생태대학(Human Ecology) 또는 건축대학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으로서의 예술인문(Art & Humanities)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건축설계는 실내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표 2> 국내 실내디자인학 대학원 현황

번호	대학교	대학원	유형	학과 또는 전공	학위명	학점수	설계수업	논문	박사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일반	소비자주거학과	이학	26(32)		○	
2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전문	실내건축설계학과	실내건축학	51/63	○	○	○
		대학원	일반	실내디자인전공	예술학	24		○	○
3	경성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특수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	24(30)	○	△	
		멀티미디어대학원	특수	인테리어디자인전공	디자인학	24(30)		△	
4	가천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건축학과	공학	24	○	○	○
		산업환경대학원	특수	실내건축전공	공학	24(30)		△	
5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반	주거환경학과	주거환경학	24	○	○	○
6	관동대학교	대학원	일반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	○	○	
7	국민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36)		○	
		디자인대학원	특수	실내설계전공	디자인학	24	○	○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전문	실내디자인전공	디자인학	39	○	○	○
8	대구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건축학과	디자인학	24		○	
		디자인대학원	특수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디자인학	25(31)	○	△	
9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특수	시각&실내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30)		△	
10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전공	공학	24	○	○	○
11	부산대학교	대학원	일반	주거환경학과	이학	24	○	○	○
12	상명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디자인전공	디자인학	24	○	○	
1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일반	디자인전공	디자인학	36		○	○
14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특수	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	24(30)		△	
15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일반	환경디자인학과	미술학	24	○	○	○
16	숭실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디자인학과	공학	24	○	○	○
17	연세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건축학과	이학	30		△	○
		생활환경대학원	특수	공간디자인	이학	24(30)		○	
18	울산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	디자인학	24	○	○	
			일반	주거환경전공	가정학	24		○	○
1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		○	○
		디자인대학원	특수	실내디자인학과	디자인학	30	○	○	
20	인제대학교	Hospital Facilities	일반	U디자인학과	디자인학	30(36)	○	○	○
21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디자인협동과정	실내디자인학	24	○	○	
22	조선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디자인학과	미술학	24	○	○	
		디자인대학원	특수	스페이스퍼블릭디자인	디자인학	25(36)	○	△	
23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전공	디자인학	32	○	○	○
		건설대학원	특수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학	28(32)	○	△	
24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특수	공간디자인학과	공학	30(36)		△	
25	정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특수	실내디자인학과	미술학	24(30)		△	
26	충북대학교	대학원	일반	주거환경학과	이학	24		○	○
27	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특수	실내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30)	○	△	
28	한성대학교	대학원	일반	디자인학과	미술학	24	○	○	○
29	한세대학교	대학원	일반	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30)	○	○	
30	한양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학	24	○	○	○
31	호서대학교	대학원	일반	공간디자인학과	디자인학	24(36)		○	
32	홍익대학교	대학원	일반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학	30	○	○	
			일반	공간디자인	미술학				
		건축도시대학원	특수	실내설계전공	실내건축학	24(30)	○	?	
	산업대학원	특수	공간디자인	미술학					

내디자인의 학문적 분류가 예술,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그 모든 것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전문 분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정체성과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지식체계의 정립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자칫 실내디자인학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살펴보면 A+U,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ural Record, Design Journal, Design Issues, Interiors-Design Architecture Culture 등의 저널들이 모두가 디자인이라는

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분류체계 <http://www.ncs.go.kr> (2014.9)
15) Jan van Toom, 윤원화 외 역,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시공아트, 2004, p.148

분류 아래 A&HCI¹⁶⁾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국내 실내디자인 석사학위 종류와 현황

국내 실내디자인의 석사학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야의 분류도 예술, 공학, 자연과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학위가 수여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관련 대학원은 대략 32개 대학교 소속의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학부 수보다도 대학원의 수가 많은 것은 하나의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3곳이나 된다.

대학원의 형식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이 26개, 특수대학원이 16개, 전문대학원 2개로 일반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학위명칭을 살펴보면 디자인학석사(Master of Design) 21 > 이공학사(Master of Science) 12 > 예술학석사(Master of Fine Arts) 7 > 실내건축학석사(Master of Interior Architecture) 4 > 기타 순으로 디자인학석사가 가장 많이 수여되고 있다.

이수학점은 24학점부터 63학점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 24-30학점 사이가 일반적이며 졸업을 위해 논문은 대부분 필수요건이지만 특수대학원은 추가 이수학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박사과정의 경우 대략 18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실내디자인학회에서 등록된 박사 학위과정 보다도 그 수가 많다. 전체 대학교의 수가 미국이 월등히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국내 실내디자인학 박사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4. 미국 실내디자인학의 석사학위 제도와 교육특성

4.1. 포스트 프로페셔널과 퍼스트 프로페셔널 석사과정 (Post - professional & First - professional Master's Degree)

미국의 실내디자인학 관련 석사학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학사 후 석사학위과정(post-professional master's degree 이하 PP석사학위)과 최초전문석사학위과정 (first-professional master's degree, 이하 FP석사과정)이라는 상위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대학들이 존재하고 특히 일반 연구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된 석사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미국¹⁷⁾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교육 질적 유지를 위해 미국고등교육위원회(CHEA)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문학문분야의 교

육은 다시 전문분야인증기관(ASPA)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실내디자인학 교육인증기관인 CIDA(Council for Interior Design Accreditation)를 포함한 각종 전문분야 교육인증기관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¹⁸⁾ 따라서 여러 분야의 석사과정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등의 일괄적 틀 속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전체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분야의 특성에 맞춰 고등교육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실내디자인계는 그 동안 전문교육이 학부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기에 학부 과정에서 전공수업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실내디자인학의 경우도 교육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인증된 전문학사과정(professional bachelor degree)을 이수함으로써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학사과정 이후 진학하는 석사학위과정이 PP석사학위과정이다.

그러나 전문교육을 대학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석사과정에서 처음 전공수업을 접하는 FP석사학위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미국실내디자인학회(IDEC)의 자료¹⁹⁾에 의하면 대략 65개 대학교에서 실내디자인학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는데 실내디자인학 관련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진학할 수 있는 FP과정도 다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 예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나 필라델피아의 드렉셀 대학교(Drexel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때로는 한 학과에서 PP와 FP 과정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 Univ.)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1970년에 M.A, M.S학위과정이 그리고 1990년에 M.F.A학위과정이 만들어졌다. FP과정으로서의 M.A와 M.S학위과정은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중심의 수업을 듣게 되고 PP의 M.F.A학위과정은 이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로는 일리노이주립대학교(Illinois St. Univ.)와 아이오아주립대학교(Iowa St. Univ.)등이 있는데 학교마다 두 개 과정의 차이를 수업내용, 학점수, 논문 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CIDA는 전문학위과정을 인증하는 기관이기에 FP과정의 교육은 인증대상이지만 전문학사 후 진학하는 PP석사과정은 별도 인증없이 운영될 수 있다.²⁰⁾

4.2. 연구 중심의 인문학석사(M.A), 이학석사(M.S)학위

16) 웹오브사이언스,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cgi-bin/jrnlst>
17) 윤영환 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 고용 연계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175
18) 심은주, 교육과 실무의 상호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인증제도: 그 역할과 의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2호, 2004, p.4
19) 미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idec.org/files>
20) 미국실내디자인교육인증원 <http://accredit-id.org/students-parents/faqs/>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실내디자인학 석사학위과정은 아마 M.A(Master of Arts)일 것이다. 여기에서 Art란 오늘날의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예술(Fine Art)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던 르네상스 이전의 시기 즉, ‘Ars’로서 규범과 원리에 입각한 실천적 학문을 의미한다. 이는 학문의 기원을 그리스로마시대에 두고 있는 미국 아카데미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실내디자인학의 M.A과정은 국내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과 비슷하게 다양한 인문예술 관련 이론 수업들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학위논문을 졸업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한다. M.A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들로는 California St. Univ.(Fresno), Iowa St. Univ., San Diego St. Univ. 등이 있으며 디자인대학 내에 M.F.A학위과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MS학위과정 역시 국내 일반대학원 개념과 비슷한데 대부분 사회학 또는 건축계열의 대학에서 주로 운영되는데 California St. Univ.(Northridge), Colorado St. Univ., Cornell Univ., Kansas St. Univ., Univ. of Minnesota, Nebraska Univ., Univ. of Oklahoma, Univ. of Wisconsin, Virginia Tech. Univ. 등이 있다. Cornell, Florida St. Illinois St. 그리고 Oregon St.처럼 특이하게도 MA와 MS 학위과정을 둘 다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도 있다.

이론 연구 분야 즉 전통적인 학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이자 최종학위(terminal degree)는 아직까지 박사과정이다. 따라서 M.A와 M.S학위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학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박사학위로 진학하기 위한 과정적 학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4.3. 전문가 과정으로서의 예술전문석사(M.F.A)와 실내디자인학 석사(M.I.D)

전문가로서의 실내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학부 전공 졸업 이후 설계 심화과정으로 M.F.A(Master of Fine Arts) 또는 M.I.D(Master of Interior Design)과정이 있다. 국내학위 제도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최종학위과정으로서의 예술전문석사학위(M.F.A)일 것이다. 국내에서 M.F.A는 미술대학에 소속된 경우 수여되는 석사학위이지만 미국에서는 건축의 M.Arch와 같이 실무중심의 전문석사학위이자 분야 최종학위로 인정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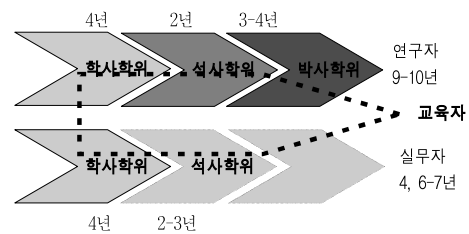
따라서 미국 실내디자인학과의 교수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국내처럼 ‘석사’ 또는 ‘박사’가 아닌 분야의 ‘최종학위 소지자(Terminal Degr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석사학위이지만 박사학위의 과정적 학위로 이해되는 M.A나 M.S와는 확연하게 구분 하고 있다. M.F.A만 운영되는 Cal St. Univ.(Davis), Georgia St. Univ., Purdue

Univ., 등도 있으나 대부분 MA나 MS등의 일반석사학위와 함께 존재한다. M.F.A는 대부분 60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졸업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론수업과 이를 적용한 설계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

M.I.D 또는 MIA(Master of Interior Architecture) 학위과정의 경우 대부분 FP과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내용과 학점 수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학교로서는 Univ. of Florida, Florida International Univ., Kansas St. Univ. Univ. of Texas(Austin) 등이 있으며 84학점을 6학기제로 운영하고 보스턴 건축대학(Boston Architectural College)등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학 등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4.4. 다양한 로드맵, 차별화된 학위 그리고 지속적 논쟁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미국 실내디자인학의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로드맵이 존재한다. 학부에서 실내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연구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M.A나 M.S과정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면 된다. 그러나 보다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희망할 경우 전문석사학위인 M.F.A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 연구, 실무 그리고 교육자 교육과정 모형

만약 학부에서 실내디자인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전문석사과정으로 편입하여 PP과정의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M.I.D와 같은 FP과정의 석사학위 과정으로도 진학이 가능하다. PP석사학위와 달리 FP석사학위도 학점 수 등에 따라 전문석사학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분야 내의 최종학위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PP과정 전문석사학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학문분야를 7년 정도 공부해온 사람과 전문분야를 3년 정도 공부한 사람과 동급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M.F.A와 같은 최종학위로 인정할 수 없다²¹⁾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학문의 특성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융합과 디지털이 강세인 요즘에 이전과 같은

21) Rabun Josette,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 2 2007 pp.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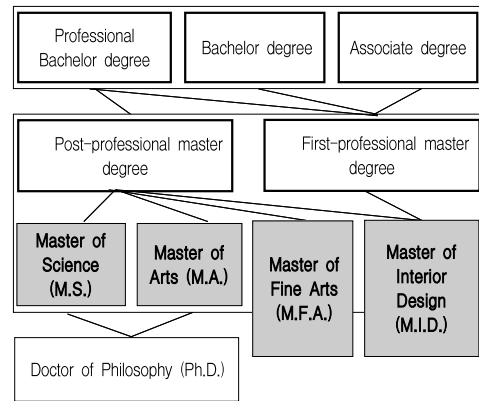
기준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문가의 교육 기준이 반드시 학부에서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M.I.D가 FP과정이지만 최종학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박사학위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학위과정임은 맞지만 실내디자인학의 특성상 박사학위 소지자가 더 적합한 교수의 자질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증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Evidence-based Design)의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학교육에서는 필요하기에 전문석사학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다양성이 중요한 디자인 분야에서 학부의 전공이 이전처럼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실내디자인학 교육인증기관인 CIDA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라면 FP과정일지라도 그 교육의 내용과 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다른 분야 특히 건축계에서 비전공자의 M.Arch 과정도 인정하는데 실내디자인이 이와 같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²²⁾

학위제도의 주제는 정체성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진정 독자적 학문으로서 실내디자인학의 이상적 학위제도는 무엇이며 대학교수로서의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국가연구사업 등과 같이 다른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는 분야에서 실내디자인의 참여비중이 낮은 것은 일반적인 대학원의 기능 즉, 지식생산의 역할을 담당할 연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결국 실내디자인의 핵심은 설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에서 건축학의 경우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51%가 대학원과정이고 실내디자인이 실무 가운데 함께 일하는 빈도가 높은 건축가들 다수가 M.Arch 학위 소지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는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실내디자인만의 연구개념 그리고 전문 교육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³⁾ 특히 앞서 언급된 보이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산학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데 디자인 교육이 ‘품격을 바탕으로 다양성(Diversity with Dignity)’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과 지식의 적용을 강조하는 보다 강력한 FP과정의 M.I.D석사학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⁴⁾

5. 결론

대학원의 존재이유는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의 생산을 통해 분야 고유의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의학, 법학 등과 같이 지식의 생산이 지식의 적용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의 생산과 적용이 모두 중요한

실내디자인계의 학위제도 존재방식은 미국학계의 끊임없는 논쟁이자 진화의 대상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실내디자인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점들을 도출하는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각론보다는 전체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미국실내디자인학 고등교육 로드맵

첫째, 국내대학원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석사과정 제도와 M.A, M.S, M.F.A, M.I.A 등과 같이 동일한 학위명칭이 존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소속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위명칭이 달라지고 있으며 미국 실내디자인학에서는 수여되고 있지 않는 디자인석사학위가 가장 많다. 미국의 경우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부에서의 전공여부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학위명칭은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는 연구과정으로서의 학위와 전문가 과정으로서의 학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가 과정의 경우 석사학위이지만 분야의 최종학위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도 극소수이지만 전문석사학위가 존재하고 있지만 학계의 공통적 합의나 제도적 정립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위취득 이후의 처우에도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전문석사학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현재와 같이 문화예술, 공학, 사회 등의 다른 학문 분류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실내디자인, 실내건축, 또는 공간디자인을 국제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술문화로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실내디자인이라는 분야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22) Weigan John & Harwood Buie,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 2 2007 pp.3-5

23) Guerin Denis,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 2 2007 p.5

24) Guerin Denis & Thompson Ann, Interior Desig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n Educational Transformatio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0, No.1 2004 pp.7-9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제품, 실내, 건축, 도시 등 설계 대상의 물리적 영역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상위개념으로의 분류를 의미하기에 관련 전문분야와의 협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우선 분야 내부의 통합적 의견과 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분야 내외의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실내디자인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교환과 통일된 의견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관리 중심이 아닌 분야의 독자성을 바탕에 둔 교육시스템의 재정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산학계 모두에게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IDEC을 중심으로 CIDA, NCIDQ, 그리고 ASID가 함께 학위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다른 학문분야와 동일한 석박사(M.A, M.S, Ph.D) 학위과정 그리고 분야의 특성을 살린 실무중심의 최종학위로서의 전문석사학위과정(M.F.A, M.I.D)이 정리되어 있고 이는 분야 내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CHEA와 ASAP와 연결되어 있다.

넷째, 통일성, 다양성 그리고 차별성을 기본으로 하는 다층적인 교육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학사 소지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PP와 FP과정을 구분하고 교육 내용과 목표가 연구인가 실무인가에 따라 일반석사(M.A, M.S), 전문석사(M.F.A)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으며 학생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실내디자인학 관련 대학원은 다양한 체제와 명칭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가 그냥 하나의 '석사학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문 연구를 위함이 아니라 학력에서의 차이를 위해 또 다시 박사학위로의 진학하는 고학력 지향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보완작업은 필수적이고 학문도 살아있는 유기체같이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진화를 두려워해서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분야를 막론한 공통의 연구 언어와 방법론에 기초한 기존의 교육방식은 물론 실내디자인의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갈등이 아닌 학문의 정체성, 대학원의 존재이유, 교수평가방법 등에 대한 긍정적 토론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Boyer Enerst L. Scholarship Reconsidered,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0

2. Charles Thwing 저, 이우행 역, 대학과 학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9
 3. Jan van Toom, 윤원화 외 역,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시공아트, 2004
 4. 김형광 외,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58호, 2005
 5. 심은주, 교육과 실무의 상호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인증제도: 그 역할과 의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2호, 2004
 6. 윤영환 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 고용 연계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7. 정호연, 국내 MBA 교육환경 변화와 경영전문대학원의 구조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2
 8. 최효지, 대학원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2013
 9. Guerin Denis,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2, 2007
 10. Guerin Denis & Thompson Ann, Interior Desig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n Educational Transformatio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0 No.1, 2004
 11. Rabun Josette,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2, 2007
 12. Weigan John & Harwood Buie, Defining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3, No2, 2007
 13. 교육과학부, 2011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http://www.moe.go.kr/web> (2014.6)
 14. 교육과학부, 2014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http://www.moe.go.kr/web> (2014.6)
 15. 교육인적자원부, 경영(금융, 물류)전문대학원 육성체계 계획, 2005. 11, <http://www.moe.go.kr/web> (2014.6)
 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s.go.kr>
 17. 미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idec.org/files> (2014.7)
 18. 미국실내디자인교육인증원, <http://accredit-id.org/students-parents/faqs/> (2014.8)
 19. web of science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cgi-bin/jrnlst> (2014.8)
 20.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분류체계 <http://www.ncs.go.kr> (2014.9)

[논문접수 : 2014. 09. 30]
 [1차 심사 : 2014. 10. 27]
 [게재확정 : 2014. 12. 12]